

주문량 전년 2배…해남 절임배추 인기 상한가

배추값 고공행진 속

김장철 맞아 수요 급증

고품질 절임배추 생산 주력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청정 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황 부진으로 배추가격이 고공행진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는 게 해남군의 설명이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경우 이달 초부터 절임배추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1만2000여박스(20kg 기준)의 주문이 완료됐다. 특히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하루 평균 주문이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

해남미소를 통한 절임배추의 주문 건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주문량(6065박스)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해남 절임배추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 최대 배추 절임시설인 화원김치가공공장도 절임배추 주문이 쇄



해남지역 배추가공공장에서 직원들이 절임배추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도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하루 평균 70톤 정도의 절임배추 주문이 밀려들고 있으며, 일반 택배 물량을 비롯한 하나로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절임배추 2000~2500톤 가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백여곳에 이르는 해남지역 배추절임 생산업체에도 주문량이 쏟아지

면서 모든 직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절임배추 생산에 매달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읍면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 등 개별농가를 비롯한 화원김치가공공장, 중소절임업체 등 1000여개소에서 3만4000여톤의 절임배추를 생산해 530여 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판매고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재문 해남군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올해는 배추 작황 부진에도 생배추 가격 상승과 절임배추를 이용하는 김장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 절임배추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추는 시장출하를 억제하고, 절임배추 가격을 전년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고품질 절임배추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배추로 만든 해남절임배추는 2.5kg 이상 배추만을 사용하고 엄선된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을 사용해 위생적인데다, 3~4차례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뺀 뒤 배달되기 때문에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 판로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지원과 함께 농가 마케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남 절임배추 명품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배추는 작기가 짧은 중부지방 배추에 비해 70~90일을 충분히 키워내 쉽게 물러지지 않고, 황도망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 등 영양소도 풍부해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배추로 꼽힌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보건소 에이즈 예방 캠페인

진도군 보건소는 “제29회 세계 에이즈

의 날(12월1일)을 맞아 진도를 조금리 5일시장 나들무대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진도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에이즈 관련 홍보물 배부, 악명·무료검사 알리기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에이즈 초기엔 감기,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만으로는 감

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감염 의심시 반드시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061-540-6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에이즈는 자발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며 “에이즈에 대한 무료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에이즈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관광 인증샷 올리고 경품 받으세요

郡 ‘겨울여행 이벤트’ 개최

완도군은 “겨울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6 완도 겨울여행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간 완도를 여행하고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www.wando.go.kr)에 올리면 심사를 거쳐 20명에게 완도관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완도 행복 사진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난대림 한터, 완도를 잡아라’란 이벤트를 통해 완도수목원과 보길도 윤선도 원림, 청해포구 활영장에 숨겨진 캐릭터(소년장보고, 해초,미초)와 함께 인증

샷을 찍어 카카오톡스토리(story.kakako.com/ch/wandoevent), 페이스북(face-book.com/wandoevent)에 응모하면 선착순 230명에게 숙박권과 식사권, 특산품 교환권 중 한가지를 지급한다.

경품으로 지급받은 숙박권, 식사권, 특산품 교환권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완도행복사진관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응모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12월 26일 당첨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다만 완도방문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관광정책과(061-550-5432)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읍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개편

진도군은 “진도읍사무소가 ‘진도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사회 ‘복지 허브’로 탈바꿈했다”고 29일 밝혔다.

진도군은 진도읍사무소를 진도읍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 행정기능에 복지·안전 등 기능을 더한 곳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심층 방문 상담, 사례

관리 등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도군은 지난 7월 진도읍사무소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인력배치를 완료했으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밤길도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완도군 전남 최초로 스마트폰 앱 제공

완도군이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도 최초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완도군 안심귀가서비스를 지난 24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완도군 안심귀가서비스는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지리정보시스템과 사용자 스마트폰의 GPS 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늦은 밤길 어플을 실행하면 된다.

사용자는 이동중 위험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어플의 ‘위급상황’을 클릭하면 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알람이 전달된다.

이후 당사자의 정보와 인근 CCTV에 찍힌 화면이 관제센터 내 대형 모

니터에 나타나고, 관제요원이 당사자와 통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 출동 등 즉각 대응에 나서게 된다.

완도군 안심귀가 서비스 앱은 개인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완도 안심귀가’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조평호 완도군 안전건설과장은 “지난 5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24시간 365일 관제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안전 인프라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완도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이용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군이 개설한 ‘천연염색 전문자격과정 교육’에 참여한 진도 여성농업인들이 천연염색 실습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여성 농업인 전문자격 과정 교육

교육생 16명 전원 천연염색 자격증 취득

진도군은 “농촌 여성의 자기계발과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천연염색 전문자격과정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생 16명 전원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12회 72시간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염색기법 원리를 이해하고 계절별 염색실습 등 천연염색 전문 과정 전반을 교

육했다.

이들 여성 농업인들은 앞으로 천연염색 판매와 전시를 출품에 도전하는 등 소득 증대에 나설 계획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식품 6차산업 교육 관련 자격취득 과정을 확대해 농업인 역량 강화를 비롯한 농업소득 5000억원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예산)
- 매매 - 협의, 감정14억

담양, 금성면 토지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 외 13필지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시세 33억, 매매 - 협의